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4호 [루계 제25142호] 주제 104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그나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빛나는 새 승리를 아로새기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번영의 전망장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4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최대의 행운이며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의 날을 맞이한 정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백두산대국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고 있는 김정은동지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쳐나갈 수 있는 군본당보가 마련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빛나는 새 승리를 아로새기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놓이 모신 4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친进行了。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천하제일 강군으로 주석단원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원들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별도형과 『경축 4돐』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

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도를 충성으로 발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대회 한 승리로 빛내여자!』 등

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령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역,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 소 일군들, 로동현지자들이 참가하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

영식동지, 리영길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홍통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조연준동지와 당, 무력기관, 군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장군찬가』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든다』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참가자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누리

는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심장깊이 절감하면서 회색의 천출위인에서 시름 절세의 국적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동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으며 주체의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든다』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밟들어 모실 고결한 충성을 지니고 둑에 운성 국장 홍승월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차재,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지원하였다.

모란봉대상으로 동지 악경심은 가정에 돌려 주신 철세위인들의 흐느낌과 밀을에 보답해 갈 혁명적의리심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 관리사업에 온전히 지성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드는 길에 헤아림에 진지하게 헌신한 풀뿌리와 풀씨, 기재들을 가지고 찾아가기 기증하는 등 일류의

신념을 지니고 청년전위신문사 기자 리기홍이 태양의 성지에 더욱 빛내이는 사업을 풀집면으로 지원하였다.

리파데학 실장 허성혁은 지난 10여년간 금수산태양궁전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높은 충실성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객관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에 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 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팔레스타이나국가 대통령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이나국가 대통령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12월 28일 이브라힘 아부 무알리코 주제 팔레스타이나국가 러시대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써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전정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통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강성부흥과 후손대대의 풍성번영을 위하여 꽃바구니들을 전정하고 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수호에 불멸의 공원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써여져 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무판단, 주조외교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 일본의 단체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주조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판단 단장인 성철증화인민공화국내사판 국방부판이 28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지난 기간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원적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시였다』라는 글발이 써여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 사회주의의 요새로

성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 사회주의의 요새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2월 30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2013년 3월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이 엄중한

그이께서는 결정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온으로써 전쟁평화신자 미제가 감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조선에 대해 도발을 걸 때마다 특출한 평군술로 그를 단호히 제압하시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2013년 3월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이 엄중한

핵전쟁을 예상해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핵력타격계획을

검토하고 최종비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각하와 꽃같으신 백전백승의 영광이시다.

【조선중앙통신】

## 백전백승의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 사회주의의 요새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조선에 대해 도발을 걸 때마다 특출한 평군술로 그를 단호히 제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각하와 꽃같으신 백전

령장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선군혁명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한 역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정은원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법칙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정은원수를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의 미래는 훈황찬란하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 박수!

【조선중앙통신】

# 김양건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同志의 총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이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극빈한 품활이군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양건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품속에서 새 삶을 받아 안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참다운

혁명가,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성장하였다.

김양건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지도원을 거쳐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지도원, 부과장, 부장, 부부장, 부장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으로 계승자로 훈련시키며 존엄높은 우리 당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고 세계 진보적정당들과의 현대성을 강화하는데



직극 기여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종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同志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치였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훈련된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

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바친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빛나는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104 (2015) 년 12월 29일

# 김양건동지의 랙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울한 시기인 주제 31(1942)년 4월 24일 풀밭이 살았던 평원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국민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김양건동지는 해방후 당과 수령의 따스로운 품속에서 유능한 일꾼으로 자라나 당중앙위원회의 중요직책에 서 오래동안 사업하였다.

일찌기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섰던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동맹일군을 거쳐 주제 62(1973)년부터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였으며 주제 66(1977)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부부장, 부장, 부부장으로, 주제 86(1997)년 2월부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으로, 주제 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주제 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제 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주제 104(2015)년 2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사업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제 87(1998)년 3월부터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주제 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로열영웅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양건동지는 주제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탁출한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또 한들기 세월의 던풀을 새기며 조국은 최후승리를 향해 큰걸음을 내짚었다. 창조적 비약하며 전변의 뚜렷한 모습을 펼친 우리 조국, 날로 강해지고 보다 아름다워진 선군조선의 주제 104 (2015)년 !

벅차게 흘러온 한해였다.

이 땅에 수哺처럼 속아오른 회한 한 창조물을 바라보느라면 백두의 칼바람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높기신 선군병장의 발길을 읊어오고 명사를 찾고 또 찾으신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운다.

한해 저물어가는 12월의 마지막 날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길에 계시었다.

뜻깊은 12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생방식동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천만군민이 빛이인은 숭고한 사상 감정은 무엇이었나.

우리 혁명무역을 불태우는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이었다.

12월 3일,

대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누리는 최고사령관복을 다시금 새겨주는 이날 환희와 걱정의 파도가 조국강산을 침강했다.

불쾌의 군역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 !

회세의 선군병장께서 높이 추켜드신 백두산총대, 그것은 이 땅에 꽂퍼나는 모든 행복을 떠받든 강력한 담보이고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민족의 보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께서 이어오신 선군장정의 길을 숭일한 격정속에 더듬는 천만의 심장은 뜨겁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선군조선의 막강한 군력을 떠나 우리 조국의 맑고푸른 하늘, 인민의 행복번영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께서 해쳐가신 선군

#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 영원하리

엄자주전은 물론 사람들의 운명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 세계무대가 보여주는 업연한 현실이다.

평화를 갈망하는 정의와 탐심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한 전쟁의재력, 물리적힘의 양한데 있으며 보다 균원적으로는 탈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장정의 자축자축이 삼삼히 어려온다. 장제도, 무도, 판문점, 오성산...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로열영웅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양건동자는 주제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로열영웅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양건동자는 주제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김양건동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색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 고 김양건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김양건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김영남	리철만	령철성
황병서	김영대	조경철
박봉주	류미영	윤동현
김기남	리일환	김형룡
최룡해	리만진	김영철
최태복	김만성	오금철
박영식	최상건	태종수
리영길	리영래	김수길
양형섭	김정임	박태성
강석주	김중협	김능오
리용무	홍인범	전승훈
오국렬	김경옥	박영호
김원홍	최휘	박태덕
파범기	리병철	김재룡
오수용	김용수	박정남
김평해	전일춘	리상원
최부일	정명학	강양모
로두철	김히래	림경만
조연준	전경남	김완수
임철웅	서홍찬	리종혁
김덕훈	노광철	김진국
김용진	림광일	박진식
리무영	조남진	

</div

#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천하제일강군으로 영원히 백승떨칠 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영광으로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통합전선을 힘차게 떨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을 성 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며 천하제일장군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받아온 최대의 행운이며 주체의 전군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십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총대형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우리 조국은 일심 단결된 청진사상강군,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대를 이어가며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심장깊이 절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헌신의 신심과 력판에 넘쳐있습니다.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 무역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온 지난 4년간은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하는 천군선조선의 위용을 힘입어 따스한 궁지높은 나날이었습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명맥을 말살하려는 적들의 죽통은 류례 없이 악랄하고 짐작하기 어렵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신의 준엄한 시련을 끊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높아지고 당시 가리키는 한방으로 만 총구를 내대고 나가는 백두산 혁명군의 불체의 위력이 날강없이 펼쳐졌으며 선의의 결심은 군사 실천이며 승리라는 뜻뜻이 활짝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의 첫걸음부터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통쾌하게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상을 놓매우는 영웅신화들을 떠나기 전화수립할 수 있는 선군혁명 위업을 전진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역사가 사상증시의 역사이라고 하시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첫째기는 위력을 사상과 도덕의 위력이며 정치사상적, 도덕적 우월성은 혁명군대의 최강의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회하기 위한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역사가 사상증시의 역사라고 하시며 인민군대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투철무장하고 정신력의 위력, 도덕의 위력으로 백성을 떨쳐가는 사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천착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구분대들을 퇴진해주시고 조국과 함께 혁명적 교양실파, 연혁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결집해 웅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원수님들이 적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 도덕적 우월성으로 타승한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투철무장하고 정신력을 확보해주시고 인민군대를 백두산총대형통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역사가 사상증시의 역사라고 하시며 인민군대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투철무장하고 정신력의 위력, 도덕의 위력으로 백성을 떨쳐가는 사상의

계시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들과 포연이 지속한 전투훈련장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 하며 당시의 명도를 맹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혼연일체의 경제에오, 진정한 전우부대가 바로 선군의 총대에 사상과 도덕을 만장악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참모습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의 총대는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조

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수호의 힘, 선군조선의 최후승리의 보검으로 위용펼칠것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는 우리 인민군대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기워주시는

위대한 영장이십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입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뿐아니라 당시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최세의 혁명강군과 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한다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용대한 영장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 공훈국가합창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29일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 장소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 그 기색으로 선로통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판람자들의 혁명적열의로 물어번지고 있었다.

듯깊은 12월 30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



세상에는 나라마다 조국수호의 사명을 지닌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부대들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다.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그 군기앞에 조선로통당의 븝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놓는다. 바로 그 당시에 수령의 군대, 당시의 군대로 존엄높은 우리 인민군의 혁명적성격과 백두산혁명강군의 박중의 전통이 어려워지면서 문이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새대가 열백년 바뀌어도 변함수 없는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짚는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본래이며, 로동당의 불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무량방법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이신 우리 수령님의 손길아래 떠여났고 위대한 선군령이신 우리 장군님의 솔직한 영광께서는 영광에 속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로 헤쳐나갔다. 풍물과 함께 양묘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봉주총리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로 헤쳐나갔다. 풍물과 함께 양묘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박봉주총리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로 헤쳐나갔다

도시미화에 좋은 나무들을 많아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생활에서 파악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화,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토지 절약형, 로령 절약형양묘장으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혁명사적판이 새로 건설되어 개관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전통에 새겨진 「인민」이라는 글자를 펴려고 지켜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위하여 총대를 틀어놓은 신념의 대부대들을 키웠다.

조선로통당의 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추켜들고

자기에게 세우기로 혁명사적판을 새기고자 헌신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혁명사적판 개관식 진행



## 친혈육의 정을 느끼였습니다

여주군 하는 피일군입니다. 제가 몸시 앓을 때였습니다.

리당비서, 관리위원장장을 비롯한 리의 일군들은 여러 차례 군병원을 찾아와 저의 몸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강회부에 좋을 보약제들과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온갖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저를 위해 새 집도

마련해 주고 생활용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 주면서 제가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아들이나가는 이런 홍물한 일군들이 있어 우리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란군 광평리 박은 철

하는 제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연진행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군대가 배두의 혁명전통을 드립없이 거창한 전진의 역사와 위대한 승리를 펼쳐나가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영도적력을 격찬하였다.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충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폐의 기상과 위용을 파시하며 경음악과 남성중창《군위부대자랑가》, 남성중창《우리의 충왕우에 평화가 있다》가 울려펴졌다.

원쑤의 아성을 들부시는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선군혁명나팔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판람자들은 최세의 선군명장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고무주동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폭포들을 펼치는 출연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판람자들의 열정적인 교감으로 하여 공연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당기, 남성독창과 남성합창《비단만풀가》, 『칠명이래 사파바다』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더욱더 살기 좋은 인민의 탁월으로 전면되어가는 내 조국의 창모습과 나날이 꽂펴나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자지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의 보고에 이어 철도성 직행위원회 리승천, 평양어린이료치료공장 초급직원 위원장 김경향, 만경대에 국ぬ성장공장로동자 활호철이 연설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평장의 웅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천출명장으로서의 세련된 명도력을 남김없이 파시해나가시는 천하제일장군이 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계시여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라며 철의 진리와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령으로 백두산혁명장군의 최후승리를 이루하고야 말 천만군민의 억센 의지를 담은 남성창합창《우리는 당신밖으로 모른다》, 남성중창과 남성합창《죽어도 혁명신령 버리지 말자》, 남성창합창《가리라 백두산으로》는 판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당파 수령을 결시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는 혁명령들의 숭고한 널을 이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파라 물어버리는 광풍도, 모진 난관도 맞았어 뚫고 해치며 이 세상 끝까지 가고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맥세와 함께 일어나오고있는 『위대한 김정은동지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필승의 구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신 4돐을 지나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민족군대를 높이 모았다. 그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대체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휘하거나가도록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는 탁월한 선군령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4돐이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무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사적사변은 삽시에 온 겨레를 격통시켰다.

그때를 강회깊이 둘러펴보며 어느 한 해외동포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령도자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것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원의 성취였다. 인민이 그이를 최고령도자로, 윤명의 대양으로 높이 뛰어들어올린 것이다.』

그의 빛나는 안광, 품모한 모습, 따뜻한 손길, 강인한 기운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였다. 그분의 거룩하신 도습은 위대한 한 군님의 위엄을 축복하게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실 또 한분의 걸세의 위인, 김일성조선의 새 100년 대를 광명으로 이룬 도하실 찬란한 태양의 모습이었다.』

주체 101(2012)년 1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원수 서유록수령 105당크사단을 방문하시자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날조선언론들은 『최고사령관 첫 현지시찰』, 『첫 단독 군부 대시 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선군정치를 계속 이어나가실 의지를 선보여』, 『김정은시대의 시작』 등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 시켜 파도세찬 풍랑길도 헤치지

고 험준한 칼벼랑길도 뚫어야오르시며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임없는 신군혁령도는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변들의 흔속이 있으며 또 한분의 친출명장을 모신 온 겨례의 더 달콤한 때 혹파 흠토를 냉는 원천이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군혁령도의 정점을 가려가면서 『김정은최고사령관 지난 전쟁시기 서울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와 서대문형무소대문을 깔아뭉개던 부대를 방문』, 『루에블로』 호를 나온 후 해군 기록을 시찰, 『4·6명의 영웅들을 배출한 기계화군단을 시찰대상으로 선정』 등으로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정세평론 회제의 천 출영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자주통일업의 승리를 대신 한 사람의 학관을 안겨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김 일성주석은 1968년 〈루에블로〉 호 사건 때 보복은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유령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에서는 권리의 계승이 아니라 혁명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김정희 고사령관께서 선군혁명 위업의 진두에서 서제시에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의 력사는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한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 시켜 파도세찬 풍랑길도 헤치지 고 격동된 심성을 터놓았다.

조국방선 천리에 선군혁령도의 불멸의 자속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임없는 신군혁령도는 세계에 큰 충격을 세게 가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 대해 남조선 언론들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은 공식 통장한이래 세계 10대령으로 선정』, 『인민여성사장 가장은 시간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보은 지도자』, 『군사강국으로 된 나라 가운데 가장 젖은 지도자로서 세계 주목을 끈 지도자로 기록』 등으로 전하였다.

불폐의 군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령도는 온 겨례의 가슴마다 회색의 천 출영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자주통일업의 승리를 대신 한 사람의 학관을 안겨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에서는 『북은 김정은최고사령관 중심으로 혼들림없이 나갈것!』이라는 제목으로 재미동포학자와의 기자회견내용도 실려왔다. 한때 남조선에서 한신대학교 철학 교수, 단군학회 회장으로 있다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에서는 권리의 계승이 아니라 혁명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김정희 고사령관께서 선군혁명 위업의 진두에서 서제시에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의 력사는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혼들림없이 나갈것!』이라는 제목으로 재미동포학자와의 기자회견내용도 실려왔다. 한때 남조선에서 한신대학교 철학 교수, 단군학회 회장으로 있다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에서는 권리의 계승이 아니라 혁명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김정희 고사령관께서 선군혁명 위업의 진두에서 서제시에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의 력사는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거품만들기』라고 말하고싶다.

북의 역사학과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그를 위한 충분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보여주었다.』

남조선의 『동일뉴스』, 『자주민보』를 비롯한 전보적인 언론들

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신군혁령으로서의 힘과 자질에 대해 『김정은최고사령관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끌어가는데 가장 젖은 지도자로서 세계 주목을 끈 지도자로 기록』 등으로 전하였다.

불폐의 군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령도는 온 겨례의 가슴마다 회색의 천 출영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자주통일업의 승리를 대신 한 사람의 학관을 안겨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부대들을 험지지 않으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미대결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미국식자율의 세계로운 경계를 개척하시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무비의 달력과 변화무쌍한 지역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 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부대들을 험지지 않으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미대결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미국식자율의 세계로운 경계를 개척하시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무비의 달력과 변화무쌍한 지역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 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 파감하고 공격적인 담력과 배짱

남조선 각계가 격찬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으로 사대회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배짱과 담력이 어떤지만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운명은 북지도자와의 주민족에게 들어가 있는 샘에 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미국을 상대로 강력히 맞서고 계신다.』는 경탄의 목소리가 더이도 없다고 칭송하였다.

『현 뉴스』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군부대들을 험지지 않으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미대결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보도하였다.

군사전문가는 우리 전략집수 학의 탄도수현종시험발사의 원전 성공에 대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명도로 따라 일당 결심한 것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대로 밀고나가며 여기에 그 어떤 재제와 압도로 통하지 않는다는식의 강한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빌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ا일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조선 전지역 상공에 대규모의 공중 핵동군사연습이 한창이던 긴장한 그 시각 공화국의 평정을 두고 전쟁하고 전군의 비행장을 모두 평양에 불러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신 사실은 지금도 남조선 각계의 경관을 자아냈다고 보도하였다.

그들은 민족운명의 위대한 수호자, 불세출의 선군영장이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자주통일업의 승리, 민족번영의 새시대에 밝아오고 있다.』

언론들은 비행사대회 진행은 남미과 미국당국을 기질조종케 하였다고 하면서 한 대회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명도를 받는 이 북미군은 물의의 전쟁을 결단코 용납치 않는 정의의 군대, 어국의 군대이다.

전문가들이 『북미전쟁은 100시간간에 신홍군사장국과 북의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이라고 평했듯이 배우려면 배우려면 배우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쌔울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력을 끌고 청진 혁정조인의 밝은 배짱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덤힐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폭과도 마이클수 있으며 막강한 미국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밝혀졌다.

한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판문점에 나가시었을 때 앞으로

# 자주강국의 위용을 떨치신 걸출한 정도자를 만민은 끌없이 흠모하고 따른다

동방도 서방도 70년을 말해왔던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으로 1945년의 기슭에서 스스로의 산맥의 길을 걸어오늘 이론나라와 민족들의 각인을 몰아온 사람에게 한 나라, 한 민족의 강대성은 턱탈한 수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의 진리를 확신해 하였다.

국제부에 살관하는 부정의 와 탄무하는 강원과 전횡,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심각한 사태들을 자기의 폐지에 기록한 해에 인류는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고 누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악랄한 원주인을 뚜렷히 알게 되었다. 정의도 자주도 자기의 강위력한 힘에 의해 담보된다는 피의 교훈도 빼어 새기었다.

## 행성의 위대한 수호자

전대미문의 화생과 폐비를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70년이 되는 이에는 누구에게나 평화의 귀중함을 자각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간하는 이 시각조차 세계는 평온하지 않았다. 국토량만, 민족분열의 70년을 고려하는 조선반도는 그 전자였다. 전쟁과 평화의 계선조차 없는 이 땅의 2015년은 춘엄한 나날들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세계에 들어서기 바쁘게 『추가제제』를 선포한다. 우리의 협과 미사일과 철제기를 위한 한미도의 험화에 대한 대구조를 불어왔다. 우리 제도를 『봉파』시킨다고 악설을 퍼부으며 미국남 조선반도까지 세로로 편성하는 듯한 미세도의 폭기는 시시각각 북침으로 치달았다.

이제 조선의 종대가 무섭게 쇠퇴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전선구분들이 세례의 첫 표성을 올렸다. 무자비한 타격으로 원쑤들을 빠져나온 우리에게는 험화로 전성하는 미세도 미세의 폭기는 시시각각 북침으로 치달았다.

지금 세계는 잊지 않고 있다.

수십억 인류가 불안과 우려 속에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던 지난 8월의 조선반도를.

원인을 자그마한 사건이 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변화하지 않지만』

『나라의』

『민족의』

『승리의』

『승리』

『승리』